

## 시각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분석: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박경실<sup>1</sup> · 황수영<sup>2</sup>

<sup>1</sup>경기대학교 · <sup>2</sup>가천대학교

Analysis of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ctivity Experiences Through Fishing Participation of Visually Impaired People: Focusing on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ocial Relationships

Park, Kyung-Sil<sup>1</sup> · Hwang, Suyoung<sup>2</sup>

<sup>1</sup>Kyunggi University · <sup>2</sup>Gacho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experienced by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through fishing activities. A narrative inquiry method was utilized to deeply analyze the diverse experiences and their meanings as conveyed by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fishing activities provided participants with new experiences beyond their daily routines, facilitated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interaction with nature, and served as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 Additionally, these activities enhanced social interactions and reduced feelings of isolation. The study proposes necessary conditions and improvements for sustaining the participation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in fishing activities. Suggested improvements include enhancing program design,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instructors, and focusing on participant-centered program operat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developing strategies that enable not only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but all disabled individual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leisure activities.

**Key words :** Visual Impairment, Fishing Experience, Social Interaction, Narrative Inquiry

주요어 : 시각 장애, 낚시체험, 사회적 상호작용, 내러티브 탐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Suyoung

E-mail: harriett0059@gmail.com

Received: May, 7, 2024 Revised: June, 8, 2024 Accepted: June, 20, 202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및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신진호, 홍서윤, 2022).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송진영, 2021).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는 기본 신체능력 향상, 사회활동 참여 촉진, 질병 예방 및 개선,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혜, 김지태, 2021; Puce et al, 2023). 정희정 등(2016)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가 전인적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민솔희(2021)는 전체 장애 인구의 약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으로, 재활과 사회 복귀 과정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잔존기능 유지는 물론 자존감 향상과 새로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그러나 접근성, 경제적 문제, 신체적 문제, 지도자나 보호자의 필요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김경숙, 구교만, 2017). 특히, 신체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환경부족 및 법과 제도적 장치 부족 등이 운동 제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태, 2016).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나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에 불과하며,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및 운동 제약은 장

에 유형, 장애 중증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김순영, 김지영, 2021), 장애인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춘중 등, 2022; 권현진, 양한나, 2020; 이성모, 진주연, 2021)에서는 주로 특정 장애 유형과 특정 연령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모든 장애 유형 가운데 운동 의지가 높지만,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집단으로 보고되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이는 시각장애인 집단은 운동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장애인 여가활동을 다룬 국내외 연구는 주로 장애인체육 정책, 법률, 지역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 등을 다룬 연구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경험을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다. 여기에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또한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와 시설 이용을 밝힌 연구(김환, 김지태, 2023)는 시각장애인들의 운동 참여와 여가활동 실천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진짜 이야기’(authentic stories)를 전달하고자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각장애인 신체활동 경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참여 동기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야외 레저활동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방식보다는, 개별 현상의 복잡성과 미묘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가치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Bruner(1987)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내러티브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히 개인적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도와 함께 추구하는 것이며, 연구참여자

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에 가깝다 (Connelly & Clandinin, 2004).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실증주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방식은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진화론적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Polkinghorne (1989)은 내러티브 탐구 방식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인간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이 시각장애인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론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낚시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낚시체험 경험을 참여동기, 자아효능감, 사회관계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별 현상의 복잡성과 미묘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여가활동의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낚시체험을 통한 신체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가치와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장애 유형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을 표본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표본 선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낚시하는 시민 연합과 함께 ‘취약계층 낚시체험 교실’을 3차례

개최하였다. 개최된 체험 교실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참가자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료 수집 방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참여자 개인적 특성

번호	참여자	성별	나이	낚시경험
1	A	남자	46	6회
2	B	남자	32	5회
3	C	여자	31	4회
4	D	남자	30	3회
5	E	남자	31	3회

### 2. 자료수집 및 탐구

본 연구는 2023년 9월, 2024년 1월에 개최된 취약계층 낚시체험 현장에서의 1:1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주요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장소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각 참여자와는 최소 두 차례 면담과 2회의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은 60~80분 이상 소요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레저활동, 피싱 레크리에이션, 낚시와 관련한 서적과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담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있는 곳에 재방문하거나 전화로 재확인하였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진은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인터뷰 절차,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지도하는 과정은 기사화되어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주요 테마, 패턴, 그리고 경험을 분류하고 요약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분석과 자신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자료분석 및 해석방법

본 연구는 Connelly & Clandinin(1990)가 제시한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가장 오래된 연구 방법인 생물의 표현인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방식은 더 이상 전통적인 문학 연구가들이나 민속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며,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거니와 진화론적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공유되고 있다(Michell, 1981).

정신의학자 Coles(1989)는 환자들의 정신 치료 과정에서 담당했던 환자들의 삶의 내러티브와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활용한 내러티브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인간중심’과 ‘경험의 복잡성’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보았다(Webster & Mertova, 2007). ‘무질서한 경험’을 구체화, 체계화하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의 목적이며, 면담의 결과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구자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이야기, 즉 현장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연구텍스트로 구성하였다. 내러티브는 단순히 개인적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의도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Dyson & Genishi, 1994).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구(연구자가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서 자료수집의 도구들)와 기준(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들), 구조(연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삼 차원적 공간)를 포함하였다.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대한 설명은 인간 중심의 접근과 연구자의 관심을 강

조한다는 점, 그들 간의 관계, 경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포착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점에서 다른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과 구별된다.

본격적인 현장 텍스트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에 대한 성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또한, 내러티브는 연구는 우리 삶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축되므로, 취약계층 낚시체험에 관한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선별된 사건과 이를 해석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사회·심리적 상황과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맥락을 찾아 재구성하여 낚시체험 활동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관계적 측면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와 문화적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심층 면담, 연구참여자의 확인, 전문가의 내용검토와 조언 등을 조합하여 자료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료의 다양화로 인해 자료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연구의 내용검토는 스포츠 사회학 교수 1인과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 스포츠심리학 박사 1인의 미팅을 통하여 주관적 판단 오류 수정을 진행, 연구 과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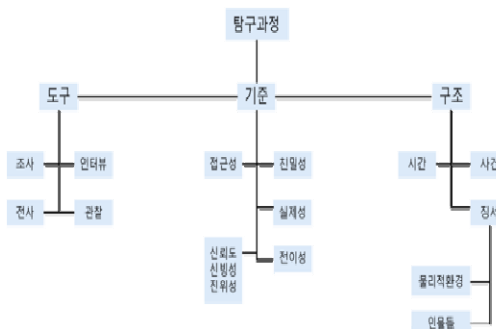


그림 1. 내러티브 탐구과정의 개요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여가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낚시체험을 통해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제약요인을 가진 장애인들의 삶에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낚시체험 활동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기효능감, 참여 동기, 그리고 대인관계와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낚시 활동이 참여자들의 심리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그들의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 Clandinin & Connelly(2004)는 인간 경험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관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로 시각장애인의 낚시체험 참여 경험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해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만의 관점에 따른 일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에 가깝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존재하는 제약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낚시체험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건설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와 운동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새롭고 건설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손끝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세계 : 낚시체험에 뛰어드는 이유

장애인에게 여가활동 참여는 장애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요인이다(송진영, 2021). 또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 등을 높일 수 있다(Park, 2011).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은 문화 및 여가활동을 TV 시청(52.3%)으로 보내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개발원, 2019). 이처럼 전반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시설마저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온전치 않은 시각장애인은 활동반경이나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고,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지극히 제한적이다(구자영 등, 2019). 이에 따라, 낚시는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위와 경험 측면에서 여가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낚시라는 활동을 통해 새로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도 느끼고 여가활동도 경험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A>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위험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변에서 권유했었어요" <참여자, B>

"야외에서 레저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낚시를 접하고 나서 마음도 편 안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 같아서 또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C>

구체적으로 활동환경 측면에서 낚시는 실외 활동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자연과 깊이 대화 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자영 등(2019)은 시각 장애인이 시각적 자극의 부재로 인해 여가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자연 속에서의 낚시는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권선근, 이해열, 2023).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결과를 통해 본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며, 낚시체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는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낚시와 심리적 변화의 여정

인간은 보편적으로 여가생활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여가생활을 하면서 전 생애 발달에 걸쳐 학습 기회를 획득하기도 하며 성장하고,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최귀정, 이현수, 2020; Infantes-Paniagua et al, 2022). 또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신체활동은 장애인들의 건강, 체력, 신체적 자기개념, 장애수용, 생활 적응, 정신적 충격 완화, 장애 극복, 자아개념, 자립 생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정혜, 김지태, 2021; 최희철, 김영미, 김혜리, 2023). 이와 마찬가지로 낚시 활동은 시각장애인들의 자기

효능감과 자립 생활역량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여가활동 중에서도 색다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참여자, A>

"야외에서 낚시활동을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고, 활동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이 생각날때면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참여자, A>

"낚시를 통해 처음으로 도전하고 성취한 경험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이는 제게 자립의 의미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참여자, A>

윤지인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개인적 만족감과 자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이나 우울한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낚시를 통해 물고기를 잡는 등의 성취를 경험할 때, 이는 그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미리와 문한식(2023)은 과제지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비교 기준을 두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개인적인 숙련 정도와 스스로의 발전 범주에서 판단한다고 하였다.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는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규칙과 규범이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 스포츠는 상대와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목이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신체적인 능력과 기능이 부족하거나 저하될 때, 자칫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분석: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낚시는 신체적인 접촉에서 자유롭고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강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는 비경쟁적 스포츠로써 상대에게 패하거나 실패에 따른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며 동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낚시체험 활동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송진영, 2021). 노스텔지어는 과거에 경험한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한 감성적 열망을 의미한다. 개인적 노스텔지어는 노스텔지어를 구성하는 정서적 측면의 일부 요인으로 개인이 경험한 특정 시점의 과거 장면을 심상적으로 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Baker, Kennedy 1994). 최근 다수의 선행연구는 노스텔지어를 여가와 소비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고취시켜 과거에 참여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Wildschut et al, 2006).

또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기간이 길수록 사회성 향상과 신체활동 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구교만, 2010). 이는 일관된 상황으로 운동 수행에 참여하게 하며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수정, 이현수, 2020). 낚시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나아가 사회로의 참여에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낚시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자기 계발의 기회, 새로운 도전의 장, 사회적 관계 형성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 3. 공동체의 물결속으로: 낚시체험을 통한 사회적 소통과 친교

장애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은 사회적 독립이 요구되는 나이에 더욱 증가되며,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고립시키고 회피하려한다(황신영 외, 2023). 그러나 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폐쇄적인 삶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등 이차적 또는 삼차적 예방의 역할도 한다(김경숙, 구교만, 2017).

또한 낚시 활동을 통한 사회적 교류는 시각 장애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교류는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안진호, 최재성, 2022). 이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여가로서 낚시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며 나아가 사회로의 참여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운동 및 경기에 따른 만족과 지속 여부는 활동을 참여하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임용택과 유정인(201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 준거집단인 낚시동호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나 태도를 보일 것이라 본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기력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강사진에게 낚시 기술도 배우고, 성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됐어요.” <참여자, A>

“강사진과의 대화,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는 이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참여자, A>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졌어요. 낚시를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어요.”-<참여자, A>

고립감은 외로움의 정서 상태로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본인의 가치를 절하 평가하는 생각을 하여 소극적인 행동을 유도한다(안진호, 최재성, 2022).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외로움과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고립감은 신체와 정신적 안녕(well-being)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Keller, Perry & Spence, 2020).

황수영(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대인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와 같은 여가활동을 통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과도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보다 포용적이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사회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적 독립을 이루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경희, 간기현, 2023). 전근성(2022)은 여가활동이 장애와 관련한 보상 및 기분 전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느끼는 단조로움, 소극적 태도 및 우울한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적인 만족감과 자기활동의 기회를 가진다(이한우, 신정택, 2020). 연구참여자들은 낚시 참여를 통해 개인의 실력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과 낚시체험 활동 참여로 인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으로서 낚시 참여는 규칙과 규범을 지키며 비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꼈던 연구 참가자들이 낚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였다.

#### 4. 끊임없는 물줄기: 낚시체험의 지속적 참여 이유 및 동기

시력 상실 및 시각적 자극의 부재로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해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힘들다(Bavli, Korumaz, & Akar, 2020). 하지만 동기는 몰입경험, 자아성취감,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쳐 신체활동 참여와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평평한 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런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고 싶어요. 낚시는 본인만의 속도로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얻어요.” -〈참여자, A〉

“앞으로 수 많은 어려움이 제 인생의 도전과제로 떠오를 거예요. 한국은 외국에 비해 직업도 취미도 제약이 많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제약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요. 야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니 날씨에 대한 긴장감과 얼음깨지는 추락사고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이 시끄러워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여가활동에 도전하고 참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참여자, A〉



동기는 상황적 동기(Ames, 1992)와 특성적 동기(Nicholls, 1989)로 구분되는데, 상황적 동기는 주변 환경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 즉 동기 분위기를 말하며 특성적 동기는 개인의 유능감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취와 목표를 지향하는 동기라 할 수 있다(Treasure, 1997). 이처럼 여가활동으로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우승이나 과시의 목적, 대회 참여를 통해 친교 및 교류의 목적, 정보나 기술 습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박현호, 2023).

그러나 낚시체험 활동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의 답변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과 스스로의 두렵음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있어 여가 참여는 그 자체가 스스로의 힘이나 타인과 극복해야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김연산(2022)의 연구를 지지했다. 이는 특성적 동기로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삶을 향한 욕구,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 제약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연은모와 최효식(2021)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는 것은 감각 추구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운동 참여와 같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정인, 김성규, 2020). 감각 추구 성향은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며, 위험성이 수반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으면 감각 추구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유정인, 김성규, 2020).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낚시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 않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낚시는 환경적 측면에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성이 있는 종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본인의 삶의 장벽에 맞서보려는 시각장애인들의 감각 추구성향이 낚시에 참여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 측면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여가활동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낚시를 하는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자신만의 속도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한 참여자들의 '목소리(vocie)'를 들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스포츠 활동에 도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제약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에게 낚시체험 활동은 제한된 상황을 넘어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하였다.

## 5. 더 넓은 바다로: 낚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 심리적 행복감을 높게 느낀다(김민 외, 2023).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가활동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재미요인, 여가만족이 중요하다(권순재, 2021). 시각장애인들이 꾸준히 낚시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제 '목소리(voice)'를 반영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프로그램의 강화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

하여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국철승, 강민정, 2024).

“미끼나 낚시도구 사용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낚시체험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매뉴얼화 시켜서 사전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A>

“장애인 참여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해요. 이동 서비스나 개인별 맞춤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만큼 지도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낚시체험의 다양성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자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프로그램도 자주 개최하고, 다양한 종류의 낚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해요.” <참여자, A>

프로그램 설계나 지도자 미흡이 시각장애인의 낚시체험 활동 제약 중 하나로 밝혀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도자의 전문성이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의 문제점으로 작용된다는 서은철, 백제근, 전태준(2017)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시각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저시력과 시야결손의 경우, 색과 빛을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을 배제하거나 쉬운 곳에 사물을 배치하는 등의 지식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의 특성상 음성이 지원되고 점자를 활용하여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 시설의 거리가 멀면 시설까지 찾아오

기 힘들기때문에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손상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고 이에 따라 사회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힌 김순영과 김지영(2021)의 연구가 뒷받침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여 시각장애인들도 원활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보조인, 지도자들의 전문성 또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역에서 겪는 한계와 불편함이 생활체육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구교만, 오아라(2012)의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어법사용 자제, 색 기반 사물 배치 및 사물과 사람의 접촉 최소화 등의 여러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적 참여 제약요인을 고려한 생활체육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한 김환과 김지태(2023)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처럼 현시점에서는 낚시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실제 참여자가 바라는 관점에서 제시한 만족도와 피드백에 관한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시각장애인들을 발화의 주체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의 협동 연구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2007). 연구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의 낚시체험이라는 틀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의 협동 연구인 만큼 ‘우리’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장소, 공

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통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함께 내부자적 관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낚시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 활동에 참여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밝혀내고, 시각장애인의 낚시체험 활동 지속적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들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에 참여하는 주된 동기는 일상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낚시 활동이 단순한 여가시간의 소비를 넘어서 자아실현과 개인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한다.

둘째, 낚시체험 활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참여자들은 낚시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립 생활역량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낚시 활동이 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낚시체험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망 형성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낚시 활동은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시각장애인들이 낚시체험 활동에 지속하여 참여하려면 동기부여 및 장애 극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낚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 설계의 개선,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참

여자들의 피드백 반영,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연구의 한계와 도출된 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질적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수많은 언어 자료에서 의미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편견의 작용, 기억의 오류, 상황에 대한 오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편견의 작용 등으로 인해 연구자가 내러티브에 부여하고 있는 진실성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심지어 자연과학에서까지 이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가 내러티브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내러티브 연구로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낚시체험 프로그램은 초보자, 특히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낚시도구 사용법, 미끼 달기, 낚시대 다루기 등 기본적인 낚시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사전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매뉴얼화하여 참여자들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동 서비스 제공, 낚시 활동 중 개인별 맞춤형 지도, 특수 장비의 제공 등 장애인 참여자들이 낚시체험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낚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지도자 인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낚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도자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개선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시 참여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참여자들이 원하는 낚시 방법,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장애인 참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피드백이 반영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들을 통해 낚시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에게 친화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활동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참여자 중심의 운영은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여가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나 홍보 부족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정보 접근이 어렵다. 이에 환경적 참여제약 요인 측면에서 시각장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미리, 문한식(2023).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성취 목표성향과 심리기술 및 경기력과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8(4), 183-190.

구교만, 오아라(2012). 시·청각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제약 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1(2), 423-430.

구교만(2010). 지체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간과 자아존중감 및 자립생활의 관계.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40(1), 463-471.

구자영, 양재원, 최용규, 조소현, 김범식. (2019). 시각장애인의 Blind Golf 참여를 통한 여가 경험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8(2).

국철승, 강민정(2024). 원예치유프로그램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융복합연구**, 9(1), 93-100.

권선근, 이해열(2023). [힐링 여행] 14 번 도로따라 느릿느릿, 거제 여행 \_ 유정하, 남쪽 해안로에서 힐링하다. **여행스케치**, 21(10), 62-67.

권순재(2021). 여가활동으로서 가상현실 (VR) 콘텐츠 재미요인이 여가만족 및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2), 51-60.

권현진, 양한나(2020).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증재에 관한 문헌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8(4), 129-140.

김경숙, 구교만(2017).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6(1), 93-103.

김경희, 간기현(2023).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행복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3(1), 81-109.

김민, 여인성, 김신혜(2023).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통한 여가열의, 여가몰입 및 생활만족의 관계: 여가스포츠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32(5), 111-122.

김순영, 김지영(2021). 장애 특성에 따른 장애인의 운동 참여, 태도 및 운동 제약 비교. **한국체육과학회지**, 30(4), 37-48.

김순영, 김지영(2021). 장애 특성에 따른 장애인의 운동 참여, 태도 및 운동 제약 비교. **한국체육과학회지**, 30(4), 37-48.

시각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분석: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 김연산(2022). 지체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상담연구**, 6(2), 81-107.
- 김정혜, 김지태(2021). 신체활동 참여 장애인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0(4), 85-99.
- 김지태(2016). 자연과학편: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1), 763-771.
- 김춘중, 김경진, 김재화, 서건우, 오아라, 윤석민, 구교만(2022). 성인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제약요인과 극복을 위한 지원 요소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2), 47-56.
- 김환, 김지태(2023).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제약요인 및 지원방안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8(1), 15-21.
- 문화체육관광부(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민솔희(2021). 여성 장애인이 체육활동에서 경험한 인권 인식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35-54.
- 박현호(2023). 낚시동호회의 동기분위기가 낚시대회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개인주의 성향을 조절효과로. **관광연구논총**, 35(1), 157-184.
- 서은철, 백재근, 전태준(2017). 시각장애인복지관 현황조사를 통한 스포츠 접근성 탐색.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167-178.
- 송진영(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1(1), 146-159.
- 신진호, 홍서운(2022). 장애인의 여가활동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연구: 여가제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2), 225-253.
- 안진호, 최재성(2022). 사회자본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비교를 통한 종단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05-137.
- 연은모, 최효식(2021). 성인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변화 유형과 영향 요인 탐색: 장애수용, 삶의 만족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8), 394-402.
- 유정인, 김성규(2020). 생활체육 참가자의 감각추구성향이 운동열정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4), 211-222.
- 윤지인, 한진옥, 이지원(2021).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코로나 관련 위험인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행동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1), 89-101.
- 이성모, 진주연(2021).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MGB 기반 부모지원의 이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85-98.
- 이한우, 신정택(2020). 신체 활동을 활용한 긍정 심리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8(2), 159-167.
- 전근성(2022). 장애인의 여가사회활동, 생활만족도, 행복의 관계: COVID-19 전후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3), 560-566.
- 정희정, 김동민, 조가람, 이용호(2016).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 과정 탐색: 발달장애인 부모 포커스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4(4), 133-149.
- 최귀정, 이현수(2020).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의 스포츠태도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9(1), 481-493.
- 최수정, 이현수(2020). 생활체육 참여 지체장애인의 자기역력가 사회성 향상 및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9(4).
- 최희철, 김영미, 김혜리(2023). 지체장애인의 행복성장이 장애수용,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보건사회연구**,

- 43(2), 89-111.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3(1), 1-199.
- 황수영, 장덕선(2020). 사격선수의 대인관계와 운동지속 및 중단 관계 연구-코치-선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38(2), 91-104.
- 황신영, 성지민, 여소담, 김유정, 조승희. (202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어려움과 성장 경험에 대한 포토포이스 연구-사회적 포함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3), 155-188.
-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
- Baker, S. M., & Kennedy, P. F. (1994). Death by nostalgia: a diagnosis of context-specific ca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1(1).
- Bavli, B., Korumaz, M., & Akar, E.(2020). Visually impaired mentally sighted: An inclusive education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Education*, 16(6).
- Bruner, J.(1987). Life as narrative. *Social research*, 11-32.
- Clandinin, D. J., & Connelly, F. M.(2004).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hn Wiley & Sons.
- Coles, R. (1989). *The call of stories: Teaching and the moral imaginati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Connelly, F. M., & Clandinin, D. J.(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Dyson, A. H., & Genishi, C. (1994). The need for story: Cultural diversity in classroom and community.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111
- Infantes-Paniagua, Á., Palomares Ruiz, A., Fernández-Bustos, J. G., & Contreras Jordan, O. R. (2022). Physical activity and self-concept in gifted students: A comparison with non-gifted students. *High Ability Studies*, 33(2), 211-226.
- Nicholls, J. G.(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 Y.(2011). A pedagogical framework for mobile learning: Categorizing educational applications of mobile technologies into four types.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2(2), 78-102.
- Polkinghorne, D. E.(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pp. 41-60). Boston, MA: Springer US.
- Puce, L., Okwen, P. M., Yuh, M. N., Akah Ndum Okwen, G., Pambe Miong, R. H., Kong, J. D., & Bragazzi, N. L. (2023).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practicing sports, athletes with disabilities, and Para-athletes: insights from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Frontiers in Psychology*, 14, 1071656.
- Treasure, J., & Ward, A.(1997). A practical guide to the use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anorexia nervosa.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The Professional Journal of the Eating*

시각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 분석: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Disorders Association, 5*(2), 102-114.

Wildschut, T., Sedikides, C., Arndt, J., & Routledge, C.(2006). Nostalgia: content, triggers,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975.

Webster, L., & Mertova, P.(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Routledge.